

위기.... 경영의 효율화로 넘다!!!



제9회 「2011년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육우부문에
대상을 수상한 “연화농장(대표 장문규)”를 소개하여 고품질의 사양관리 등의
Know-How를 공유하고자 한다.

연화농장 장문규 대표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육우부문 대상」

연화농장을 소개합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최고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를 선정·
시상하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구 등급판정결과 우수농가)’에서 육우부문
대상을 차지한 연화농장은 경기도 평택시에 자리 잡고 있다.
등급판정결과 육질 1등급이상 출현율은 52%로 전국평균 출현율보다 37.5%,
육량 B등급 이상 출현율은 96.8%로 전국평균보다 18.4%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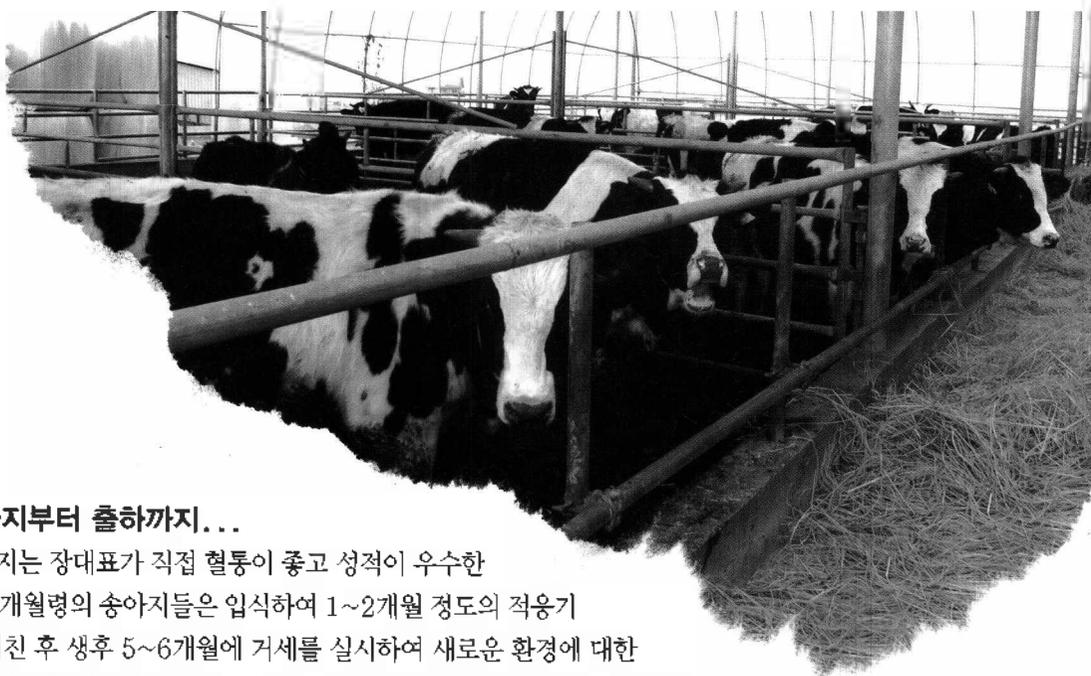
【 육질 및 육량등급 출현율(10.10~11.09월) 】

구분	연화농장		전국출현율(B)	전국대비(A-B)		
	두수	출현율(A)				
육우	육질	1**	2	6.5	0.4	6.1
		1*	3	9.7	3.1	6.6
		1	8	25.8	11.0	14.8
	거세	2	13	41.9	41.8	0.1
		3	5	16.1	43.5	△27.3
		D	0	0.0	0.3	△0.3
육량	A	0	0.0	1.2	△1.2	
	B	30	96.8	77.2	19.6	
	C	1	3.2	21.6	△18.4	

【 항목별 등급판정 결과(10.10~11.09월) 】

구분	도체중(kg)	등심단면적(cm ²)	육량지수	근내지방도(No.)
연화농장(A)	433	81.8	64.8	3.5
전국평균(B)	427	74.8	63.4	2.0
전국대비(A-B)	5.9	7.0	1.4	1.5

최대한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을 목표로 최소한의
경영비 자출을 줄이기 위해 직접
농에서 조사료를 생산·조달하고,
또한 TMR사료도 직접 배합하는
등 인건비 및 사료비를 절감하고
있다.



송아지부터 출하까지...

송아지는 장대표가 직접 혈통이 좋고 성적이 우수한

3~4개월령의 송아지들은 입식하여 1~2개월 정도의 적응기

를 거친 후 생후 5~6개월에 거세를 실시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송아지 구입 후 구충제를 투여하고

이후 봄·가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고 있다.

육성비육기간(생후 6~13개월령)기간은 기본 골격이 자리 잡아 잘 자라야하는 시기이므로
맘껏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큰소비육기간(14~21개월령)은 육성비육기와 비교하여
일부러 사료의 양을 늘리지 않고 제한급여를 실시하여 피복 지방 침착을 억제하고 있다.

출하시기(22~출하개월)는 다른 농가보다 1~2개월 더 사육한 27개월령에 출하하고 있으며
출하 5개월령 전부터 배합사료를 무제한 급여하고 있다.

[단계별 사양프로그램]

성장단계 월령별구분	어린송아지 생후 5개월령까지	육성비육 6~13개월령	큰소비육 14~21개월령	후기비육 22개월~출하
배합 사료 급여 량	1.5kg	4kg	4kg	무제한
조사료	• 볏 짚: 무제한 • TMR: 무제한급여	• 볏 짚: 무제한 • TMR: 무제한급여	• 볏 짚: 무제한 • TMR: 제한급여	• 볏 짚: 무제한 • TMR: 급여하지 않음
일당중체량	0.8kg	1kg	1kg	0.8kg
목표체중	170kg	430kg	650kg	750~800kg
중점 관리사항	• 조사료 무제한 급여로 반추위와 골격 육성 • 봄, 가을 구충제 투여 • 사료통은 매일, 음수대는 1주일 간격 청소	• 조사료 무제한 급여로 반추위와 골격 육성	• 이 시기엔 농후사료를 약간 더 제한하여 피복 지방 침착 억제	• 농후사료 무제한급여로 육질 증가 유도

경영효율화를 꾀하다...

장문규 대표는 "최대한의 소득 창출을 위해 고급육 생산을 목표로 직접 논에서 조사료를 생산·
조달하여 최소한의 경영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TMR사료도 직접 배합하는 등 인건비 및
사료비를 절감하고 있다"면서 자가배합 TMR을 급여한 이후부터 육질등급이 좋아지기 시작
했으므로 앞으로도 TMR사료를 계속 급여할 계획이며, 다른 농가보다 1~2개월 더 사육하지
만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육량 C등급이 출현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